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월 3일 수요일 (음 11월 17일) 제196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올해 중기육성기금 1700억원 지원

도, 창업·경쟁력강화 800억
벤처기업육성에 100억
경영안정자금 800억원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도움 예상



‘어떤 송아지가 튼튼할까?’

2일 새해 첫 송아지 우시장 경매가 열린 정읍시 정우면의 어느 가족시장에서 관계자들이 경매로 나온 송아지들을 살펴보고 있다.

전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총 1,7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별 지원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800억원, ‘경영안정자금’ 800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 100억원이다.

이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자금수요의 어려움을 반영, 적기에 자금을 지원, 창업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 경영애로를 해소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예상된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전년도 대비 50억원을 증액, 도내 벤처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기업들의 창업·투자를 촉진하고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업체당 최대 13억원(지역산업기업 16억원)이 지원되며 기업부담금리가 2.0%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창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기업 업체당 3억원,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우

대기업인 유망중소기업(도 선정), 글로벌 중소기업(중기부 선정), 일자리 창출기업,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은 5억원이 지원되고 지원업체별 금융비용도에 따른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 도에서 일반기업은 2.0%, 우대기업은 3.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육성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원이 지원되며 기업부담금리는 1.0%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하기 어려운 벤처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강화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금지원을 통해 전북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전북도청 홈페이지(www.jonbuk.go.kr 산업경제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자금지원)를 참고해 2018년 1월부터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하면 되며, 자금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2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인력팀(063-711-2021~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올해부터 선미촌 재생사업 ‘가속도’

전주시, 67억원 투입 특화거리 조성 등 추진키로

전주시가 올해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바꾸는 재생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시는 그간 선미촌 내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국가예산도 착실히 챙기면서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바꾸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과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

시는 올해 총 67억원을 투입해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입혀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센터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소로 개설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먼저, 시는 올 연말까지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19억원(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해 핸드메이드시티(수공예도시) 전주의 한축을 담당할 업사이클센터를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장이 위치한 선미촌 내 핵심공간에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중 업사이클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 연말까지 모든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48억원(총74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올해 △권상득로 선미촌구간의 전기통신 이중화 △

특화거리 조성 △주변 주거지역 소로 개설 △골목길 정비 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되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는 선미촌을 포함한 서노송동 일대(11만㎡)의 권상득로 특화거리 조성, 골목경관 정비, 소방도로 개설,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정점인 아트팩토리과 아트레지던시, 여행길 조성, 공동체육성사업 등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시가 민선6기 들어 추진해온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은 공권력을 동원하는 기존의 성매매집결지 정비와는 달리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기능을 전환시키는 정책

으로, 시는 매입한 성매매업소를 활용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해 성매매업소의 폐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은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도시재생 모범 사례로 인정받으며, 전주시의 사례를 배우려는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과 민간단체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은 민·관 협력의 결실과 거점공간 확보,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특히 올해는 67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성매매집결지를 점진적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규민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격 조건
경력기자 0명 신입기자 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 접수기간 2018년 1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전북도, 국·과장급 인사발령 단행

전북도가 2일, 국·과장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장급으로 ▲이승복 환경복지국장 ▲나석훈 경제산업국장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신동원 공무원교육원장 ▲유희숙 총무과 ▲신현승 총무과 등 6명이며 과장급은 ▲장경운 인권센터장 ▲박현규 세계잼버리추진단장 ▲이태현 안전정책관 등 40명이다. (과장급 명단 14명)

과장급 40명 중 안동환 지역정책과 군과 무주군으로 전출됐다. 장과 이종환 축산과장이 각각 장수 /김진성 기자

이승복 국장, 나석훈 국장, 임민영 단장, 신동원 원장, 안동환, 이종환

전주교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

대학회계직 등 31명

전주교육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최경희)는 1월 1일자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계약직 대학회계직원 4명을 정규직 대학회계직원으로 전환하고, 용역직원 전환 T/O 27명 중 16명은 정규직 대학회계직으로 신규채용하고 나머지 11명은 계약직(60세 정년초과)으로 채용하였다. 또한, 60년 정년 퇴직으로 T/O가 발생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할 예정이다.

최경희 총장 직무대리는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부방침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고용불안에서 탈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직구성원 모두 화합해 새해에는 대학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더하는 첫날 아침

함께 행복을 키우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SAMSUNG